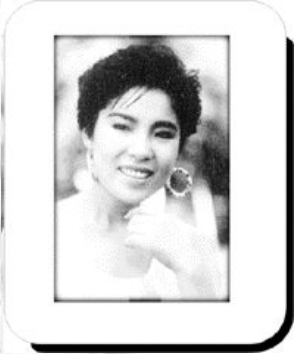


23년만에 '엔카여왕'으로 돌아온 광주출신 김연자 인터뷰



“아버지께 못다한 효도
어르신들께 드리겠습니다”

가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분들에게 좋은 무대 보여주고 싶어요.” 가수로서의 그녀의 ‘끼’를 알아챈 것은 이발사였던 아버지였다. 이발소는 꼬마였던 그녀의 무대였고, 손님들은 그녀의 관객이었다. 수창국민학교 5학년 때 출연한 ‘광주빛꽃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받은 그녀는 이미지 노래를 ‘복잡이’ 부르는 유명인사가 됐다. 수피아여중 3학년, 아버지는 공부 는 뒷전인채 노래 실력 뽑내기에 바빴던 그녀를, “니는 가수가 되라”며 완연얼처에 태워 서울 작은 집으로 보냈다. 오아시스레코드에 적을 뒀지만 15살 소녀에게 가요계는 냉혹했다. 노래를 잘 부르는데는 평을 받았지만 ‘이미지와 너무 닮아 개성이 없다’는 비평이

이 됐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발표한 새음반 ‘재회’ 역시 오리온 차트 상위에 랭크되며 저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공연장소는 일본 뿐 아니라 쿠바, 베트남, 파리, 미국 등 전 세계를 아우른다. “아무래도 기억에 가장 남는 곳은 김정일 위원장 초청으로 방문한 평양이죠. 그 때 한국 트로트를 많이 부르고 ‘반갑습니다’ 등 북한노래를 제 스타일로 편곡해서 불렀는데 김위원장이 “우리 노래 같지 않다”며 웃더군요. 제 콘서트 후 금지곡으로 묶였던 ‘황성옛터’ 등 60곡을 해제했죠.” 김연자는 아직은 한국의 음악 환경이 낯설다고 했다. 꼭 ‘우주인’이 된 듯 멍한 기분도 든다고 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한국에서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노래 이외에는 별다른 취미도 없어요. 일본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입장료 환불한 경험이 있어 건강을 위해 많이 걸으려고 해요. 술은 잘 못하지만 맥주는 즐겨 마시구요. 또 고기를 좋아해 콘서트 전에는 꼭 먹죠. 아이가 없는 대신 제가 키우는 개 4마리가 저에게 큰 기쁨이죠.”

데뷔 37년만에 고향서 첫 콘서트... 내달 8일 DJ센터

이어서다. 비어홀, 카바레에서 나이를 속이며 노래를 불렀지만 답은 없었다. 그러던 차 일본 레코드사의 오디션에 합격, 18살 어린 나이에 ‘성공’을 꿈꾸며 일본으로 향했다. 결과는 실패. 3년만에 돌아온 그녀에게는 ‘창법과 스타일이 너무 일본풍’이라는 손가락질도 이어졌다. 그러다 1981년 발표한 메들리 음반 ‘노래의 꽃다발’이 대박을 터뜨렸다. 360만장이 팔려나간 이 앨범은 지금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후 ‘수은등’, ‘아침의 나라에서’ 등을 히트시키며 정상에 선 후 그녀는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예전하고는 상황이 달랐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가수가 일본 무대에 서는 거니까요. 신인 기본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가수들이 모두 꿈꾸는 무대인 NHK 홍백가합전에 3번 출연했죠. 1989년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무용수들과 흥백가합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그때가 일본 활동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일본에 진출하면서부터 꿈꿨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그해 60만장을 판매한 ‘암야항로’ 등 50여장의 음반을 발표, 일본 레코드 대상을 거머쥐며 ‘엔카의 여왕’

제일교포이자 작곡가 겸 연주인으로, 지난 1982년 결혼한 18살 연상의 남편 김호석씨는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다. 지난해 공연 때는 남편의 밴드가 함께 무대에 섰고 올해부터는 공연회수가 늘어나 17인조 밴드와 4인조 코러스를 구성했다. 광주 공연에서는 ‘수은등’ 등 히트곡과 신곡, 민요, 애창곡 등 40여곡을 부른다. 50~80대 여성들인 일본팬 30여 명이 이미 라마다호텔을 예약까지 해둔 상태다. “제가 무대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제 공연을 보고 행복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예쁜 목소리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요. 전 다시 태어나도 꼭 노래를 할 거예요.” 티켓가격 5만5천원·6만6천원. 문의 티켓링크 1588-78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인의 희망·자유를 담다

설치작가 김상연 서울전시 24일까지 스텔스갤러리 한국분관



‘풀다’

설치작가 김상연씨가 오는 24일까지 ‘마이를 스텔스갤러리 서울’에서 전시를 연다. 이곳은 독일의 대표 갤러리인 마이클스슈츠 갤러리의 한국 분관이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풀다’(Disentangle-ment)를 주제로 날개를 단 소의 무리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형태를 나무에 새기고, 그 위에 옷칠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새로운 설치작품 4점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인 ‘풀다’는 소가 날아가는 형상을 통해 현대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고 감정의 고리가 풀이되는 희망과 자유 의지가 담겨있다. 역동적인 움직임이 강조된 소들은 마치 새떼가 날 듯 전시장을 가득 채워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또 고구려 무사들이 벌판을 달리는 듯한 웅장함마저 느껴져 자유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목마름이 적절하게 표현됐다.

김씨는 전남대학교 미술학과와 중국 항주 국립중국미술학원 대학원을 거친 뒤 동양화의 현대화를 추구한 실험적인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6년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했고, 신세계갤러리, 롯데갤러리 등지에서 9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2-546-7955.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매화의 자태

문혜영·오광해 서울전 20일까지 갤러리라이트



문혜영 작 ‘매화’

꽃말을을 터뜨린 매화와 천 년의 세월을 견딘 소나무가 화선지를 곱게 물들인다. 한국화가 문혜영·오광해씨가 오는 2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의 서울 인사동 분관이 갤러리라이트에서 2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문씨는 신세대 여성 작가의 발달하고 생기 있는 기운이 담긴 작품을 선사한다.

작품 속 만개한 꽃은 마치 젊은 여성이 모습을 보는 듯,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또 풍부한 생명으로 그려낸 화조도에서도 새들의 희망 찬 몸짓을 느낄 수 있다. 오씨는 겨울 들녘에서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절개를 화폭에 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에너지와 푸른 빛이 짙은 먹으로 표현됐다. 문의 062-613-7134.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솔리스트앙상블 19일 문예회관서 창단연주회

광주솔리스트앙상블 창단연주회가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 솔리스트 앙상블은 초당대 음악학과 학장과 유진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를 맡고있는 김연주(사진)씨를 리더로 첼로 김유정·이소연씨, 바이올린 서효근씨, 피아노 범영숙·김성아씨, 재즈 피아노 배성범씨 등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들

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소나타 G장조, 작품 100’,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환상곡’,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 23’, 글록의 오페라 ‘오르페우스’ 중 ‘정령들의 춤’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 / 학 / 안 / 내

영화에가이드

메가박스

1관	타이탄 (12세)	최고급관
2관	반가운 살인자 (15세)	
3관	타이탄 (12세)/프로포즈데이 (12세)	
4관	블라인드사이드 (12세)	
5관	(3D)타이탄 (12세)	
6관	바운티헌터 (15세)	
7관	일라이 (15세)	
8관	크레이지 (18세)/ 육혈포 강도단 (15세)	
9관	베스트셀러 (15세)	

• 호날두차단편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판 www.megabox.co.kr
구.현대약국사거리 ☎에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폭풍전야 (18세)/그린 존 (15세)
2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3관	프로포즈데이 (12세)
4관	반가운 살인자 (15세)
5관	집 나온 남자들 (15세)
6관	(3D)타이탄 (12세)
7관	타이탄 (12세)
8관	크레이지 (18세)
9관	타이탄 (12세)
10관	타이탄 (12세)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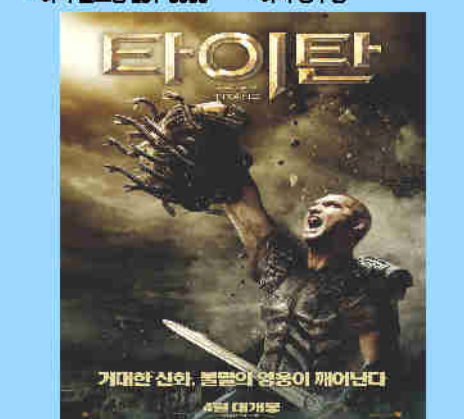


1588-7941 상무점연결 통번-(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레이징 피닉스(15세)/롤링 인 리브(15세)
2관	그린 존(15세)
3관	솔로몬 케인 (18세)
4관	의형제 (15세)
5관	비밀에 (18세)
6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전세)
7관	타이탄 (12세)
8관	타이탄 (12세)
9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10관	폭풍전야(18세)

• 5000대 방문 주차권(3시간무료) • 305 대일 심야
• 이틀 통신판 OK 캐쉬백카드 할인 혜택
• 해미 순회용 251-5767 • 해미 통신판 282-0825



고객사랑 고객센터 www.hamichema.co.kr / 1588-9120
전미우문 하미스포박스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일라이 (15세)
2관	베스트셀러 (15세)
3관	타이탄 (12세)
4관	크레이지 (18세)/ 프로포즈데이 (12세) 육혈포 강도단 (15세)
5관	반가운 살인자 (15세)
6관	블라인드사이드 (12세)
7관	(3D)타이탄 (12세)

씨너스전대 4월 1일 타이탄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이틀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전대 영화상영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타이탄 (12세)
2관	베스트셀러 (15세)
3관	작은연못 (15세)
4관	일라이 (15세)
5관	반가운 살인자 (15세)
6관	집 나온 남자들 (15세) 육혈포 강도단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세무소 기점 www.primuschema.com/www.jellicinema.co.kr •
홍창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